

# 김충현 대책위, "한국 사회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자!" 추모문화제 열

공공운수노조 | 승인 2025.07.11 12:58

연이은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으로 엄벌하라!"  
정부의 비정규직 철폐와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 강조  
7/17 용산대통령실 앞, 김충현노동자 49재 노조 추모결의대회 예정

"노동자가 안전한 일자리 쟁취하자!",

"살인기업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처벌하라!"

7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김충현의 외침이다! 이재명이 책임져라!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를 진행했다. 사회를 맡은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지난달 23일 한전KPS 전남사업장에서 감전 사고가 있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달 6일엔 인천 맨홀뚜껑에서 정비노동을 하던 3차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8일 폭염 속에 앉아서 돌아가신 베트남 20대 건설노동자는 발견 당시 40.2도였다."며 폭염 속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생각하고,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며 추모문화제 노동의례를 진행했다.

현장 연대대오로 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용균재단,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의료연대본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워크지부, 서울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건설산업연맹 등이 함께 했다. 이후 대책위 일정으로 7월 17일(목) 19시 용산대통령실 앞, 공공운수노조 및 김충현 대책위의 공동주최로 <"김충현의 외침이다! 산자여 투쟁하라!"태안화력 故김충현 49재 공공운수노조 추모 결의대회>가 예정하고 있다.



7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 "김충현의 외침이다! 이재명이 책임져라!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의 사회 및 노동의례 모습.



7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 "김충현의 외침이다! 이재명이 책임져라!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 대책위 공동대표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김성호회장 투쟁발언 모습.

김성호 회장은 한국 기업의 기형적인 하청구조 속 불안과 위험을 언급하며 "하청구조 속 기업은 노동자를 도구화하고, 이로 인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 이상으로 생명의 위협을 전가받고 있다. 지난 6일 맨홀 작업을 하던 3차 하청 노동자가 유독가스로 사망했다. 그리고 오늘 울산의 하청노동자가 유독물질로 인해 한 달을 사투하다 돌아가셨다."며 원청의 사용자성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태안화력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2018년에 같은 경험을 했다. 우리는 이미 위험의 외주화 및 하청구조의 종단이 곧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나아간다는걸 알고 있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진상규명 및 대책을 마련하라. 신속한 수사로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말했다.



7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 "김충현의 외침이다! 이재명이 책임져라!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 맨 가운데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 뒤로 추모문화제에 함께하는 조합원 및 연대대오의 모습.



7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 "김충현의 외침이다! 이재명이 책임져라!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조직국장 투쟁발언 모습.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조직국장은 "지난주 목요일, 한전KPS가 공문을 통해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이번주 월요일 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지회는 이미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진행 중이었고, 이는 한전KPS와 고용노동부도 얘기가 된 상황이었다."라며 이후 주말 1박 2일간 진행된 대책위의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소장 대상 면담 투쟁 과정을 설명하며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적인 행태와 망언들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이어서 "김용균 노동자와 김충현 노동자 사이에 충남 지역의 7명의 발전 노동자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이 은폐된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사측과 고용노동부가 있어서 안전한 일터 보장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호 국장은 "현재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 대책위의 요구로 전국의 석탄화력 발전소 대상 근로감독이 진행 중이다. 태안화력이 근로감독 중이다. 그러나 보령과 당진은 근로감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 투쟁으로 안전한 일터를 쟁취하자고 말했다. 이 국장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서부발전과 한전KPS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와 원청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누굴 처벌할지, 책임자는 누군지, 구속 수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책임자 처벌, 일벌백계를 완수해야만 또다른 발전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해진다. 우리 함께 투쟁하여 발전노동자의 반복된 죽음을 끝내자."고 힘주어 외쳤다.



7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 "김충현의 외침이다! 이재명이 책임져라!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 문화공연으로 함께한 임정득 동지.



7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 태안화력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 "김충현의 외침이다! 이재명이 책임져라!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 대책위 공동대표인 노동당 이백운 대표 투쟁발언 모습.

이백운 노동당 대표는 "김용균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 당시 대책위로 함께 활동했다. 발전소 현장의 연이은 사망사고, 이는 곧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한 사회의 시선을 상징한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현장이 공공성보다 이윤의 잣대로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런 사회를 만든데에는 민주당 및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에게 있다. 발전소를 5개로 나누어 민영화로 시도하고, 비정규직의 도입과 단단계 하청제도 도입이 어디서 왔겠는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 일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한강 작가의 문장으로 '과거가 미래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돕는다'고 말했는데, 과거의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철폐와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7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 "김충현의 외침이다! 이재명이 책임져라!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 투쟁발언 모습.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약 40%다. OECD 평균의 3배나 된다. 나 하나만큼은 잘 살겠다는 사회에서 철거와 갭투자와 전 세사기가 발생한다. 한국 사회가 지옥이 되가는 동안 빈곤율이 10%도 안 되는 나라들은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했다."며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노동권과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해도 먹고 살 수 있고, 미래를 꿈꾸고, 아플때 치료받고 교육받을 수 있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게 공공성을 지키는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기후위기 속 전기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이 발생하겠는가. 잘못된 세상을 바꿔나가는게 바로 이 땅의 노동자들이다. 공공재생에너지 입법청원 5만 달성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7/27(일)

#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

## 10,000명 달성

(7월 10일 9시 24분 기준)

20%

더 많은 청원이 결실합니다...!

폭염 폭우 멈춰!  
기후위기 대응

전기민영화  
저지

발전노동자  
고용승계

석탄 발전소  
폐쇄지역  
대책 수립



**BIT.LY/공공재생에너지법청원**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입법청원 웹자보. 국민청원 참여 기간은 6.27(금)-7.27(일)까지다. 청원 참여:

<http://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1FDCC3FA4639BE064B49691C6967B/> 공식 홈페이지: <http://www.publicrenewable.org>



7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 태안화력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 "김충현의 외침이다! 이재명이 책임져라! 태안화력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 문화 공연 중인 김성만 동지.



7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 "김충현의 외침이다! 이제명이 책임져라!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 마지막으로 국현웅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국현웅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2016년 태안화력에서 일을 시작했다. 당시 180만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중간 착취가 3-4배 가까이 되더라. 정부는 이런 행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한전KPS나 서부발전이나 우리 노동자들을 로봇 취급했다. 생전 김충현 노동자에게도 부르며 부르는데로 나오는거라고 밤낮으로 가공해야했다. 이렇듯 저임금으로 살아가며 사회적 박탈감도 느꼈지만 한편으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노동자로서의 자부심도 있었다"라며 "사측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예정 소식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부터 해고를 해야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쓰다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올해 말이면 태안화력 1,2호기가 폐쇄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나서라!"라고 외쳤다.



7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 "김충현의 외침이다! 이제명이 책임져라!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 마무리로 파업가를 힘차게 제창하는 대오의 모습

김충현의 외침이다! 산자여 투쟁하라!  
태안화력 故김충현 49재  
공공운수노조  
추모 결의대회

7.17.(목) 19시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故김충현대책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7월 17일 19시 용산대통령실 앞, 故김충현대책위 및 공공운수노조 주최 "김충현의 외침이다! 산자여 투쟁하라!" 태안화력 故김충현 49재 공공운수노조 추모 결의대회 웹자보.



